

# 전북대, 美 동문들과 유대 '재확인'

뉴욕·뉴저지 동문회  
LA 동문회 등 찾아

글로벌대학30 비록  
개교 77주년 77억원  
모금운동 동참키로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과 최병선 총동창회장 등은 지난 11일 뉴욕동문회(사진 왼쪽), 17일 LA 동문회를 각각 찾아 대화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라페피아에서 브록헤이브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권진호 원장(전북대 수의대 37회 졸업)을 찾아 지난해 발전기금 기부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모교 발전을 위한 긴밀한 연대를 약속했다.

권 원장은 지난해 10월 모교 발전과 수의대 후배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권 원장은 앞으로 수의대 후배들을 병원으로 초대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전북대 수의대는 브록헤이브 동물병원을 임상실습센터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또한 전북대 수의대와 브록헤이브 동물병원은 이번 방문에서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 전북대는 권 원장을 수의대 초빙교수로 임명하는 임명장도 수여했다.

이날 권 원장은 "수의사가 되기 위

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모교와 선배들의 큰 도움이 컸다"며 "자신도 같은 꿈을 가진 후배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문단은 LA로 건너가 이삼백 LA동문회장을 비롯한 12명의 동문들을 만나 모교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대한 관심과 동문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환담을 나눴다. 이날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이삼백 LA 동문회장에게 해외동문 특별대상을 수여했고,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LA동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삼백 LA동문회장은 "이런 큰상을 줘 어깨가 무겁다.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전북대학교 동창회와 뉴욕 뉴저지, 그리고 LA 동문회가 상호 교류를 통해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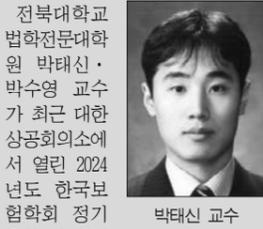
이어 "오는 10월 전북대에서 열리는 세계경제인대회에도 많은 동문 경제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세계에서 활동하는 전북대 동문들이 모교 방문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총장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문 여러분들과 전대인으로 끈끈한 유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많은 해외 동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은 우리 전북대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미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모교를 잊지 않는 동문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 모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동문회가 모교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허위·과잉 진료 방지 위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제안

전북대 박태신·박수영 교수, 한동호학술상 수상



박태신 교수



박수영 교수

으로 게재한 '허위·과잉 진료 관련 실손의료보험 인·수·지급심사 개선방안 및 감독행정 연구'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박수영 교수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보험학회 정기 총회 및 창립 6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한동호학술상'(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1964년 설립된 보험 분야 대표학회인 한국보험학회가 초대 회장인 한동호 성균관대 교수의 보험학에 대한 기여를 기리기 위해 2011년 제정, 매년 국보험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발표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에 박태신·박수영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국보험학회지에 공동

이 논문은 허위·과잉진료라는 특정 원인에 기초해 허위·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행정 등의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태신·박수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실손보험의 운영과 관련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과 관련해 법적·제도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태국 나레수안대학교와 송클라프린스대학교 학생 29명을 초청, 2주간 '더필링코리아(The Feeling Korea)'를 운영한다.

## 전북대, 태국 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

2주동안 2개 대학 29명 대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태국 나레수안대학교(Naresuan University)와 송클라프린스대학교(Prince of Songkla University) 학생 29명을 초청, 2주간 '더필링코리아(The Feeling Korea)'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환영식 및 캠퍼스투어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오후에는 한지 부채만들기와 비빔밥 만들기, 한복체험, 수제 도장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또한 무주 덕유산과 담양 수채원, 진안 홍삼산과 등을 탐방했다.

전북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의 우수 대학들과 실질적인 MOU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향후 태국 학생들이 전북대로 교환학생이나 학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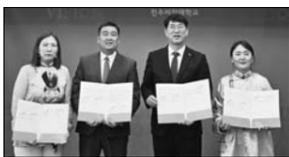
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레수안대학교 피수트 아피차야쿨(Phisut Apichayaku) 국제교류 및 기술 이전 부총장도 19명의 학생들과 함께 전북대를 찾아 양 대학 간 학술교류와 공동 연구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송클라프린스대학교 초차이 우돔판(Cherdchai Udornphan) 인문사회대학장은 11명의 참가 학생들과 함께 전북대를 찾아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처럼 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북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국어 교육 분야의 교재 개발, 한국어 학습 지원, 태국 남부지역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 '청소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전북'

제1회 전북자치도 청소년 박람회' 23-24일 개최... 글로벌 토크콘서트 등 풍성



전주비전대, 몽골 달란자르  
가드시와 국제교류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1일 몽골 달란자르가드시 및 달란자르가드 1번학교, 바얀어버 일반교육학교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병훈 총장, 이효숙 국제교류원장, KHORLOO BATBOLD 달란자르가드 시장, DELGERSAIKHAN ENKHFARGAL 달란자르가드 1번학교 교장, TSEVEENRULAM NARANTUYA 바얀어버 일반교육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달란자르가드 시는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2개 고등학교는 기초 한국어 교육 및 단기 연수생 선발을 담당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오는 23~24일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청소년박람회는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지난해 청소년성장지원 협의회 구축 협약을 맺고,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동 협력사업이다.

'청소년이 살고 싶은 전북, 머물고 싶은 전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토크콘서트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 △글로벌 진로 세미나 △청소년 진로 컨설팅 △무형유산공연 △110여개의 참여형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3일 개막식에서는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모범학생 교육감 표창, 가람스런 청소년상 시상,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어 글로벌 토크콘서트에는 유명 방송인 알파고 시나씨, 줄리아 퀴타르트가 직접 출연해 세계화 시대의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또 글로벌 진로세미나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제개발협력(ODA), 한-아세안센터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국제기구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 밖에도 청소년 문화 예술공연과 국립무형유산 특별공연이 펼쳐지며,

성격유형검사·진로탐색·전문심리검사 등 34개 부스를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제도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박람회 참여 학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200여 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특히 자체 안전관리팀을 구성해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 학생은 물론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인문학 콘텐츠 창작 공모 수상작 발표

대상 1점 등 총 10점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0일 인문학 콘텐츠 창작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문학적 시각으로 사회문화 현상과 사회문제를 다루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 작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 일반 분야(시, 수필, 소설, 포스터, 영상)와 생성형 AI 활용 분야로 진행됐다.

이에 일반 분야 19점, 생성형 AI 활용 분야 3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인문콘텐츠대학은 심사를 거쳐 일반 유형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을, 생성형 AI 유형에서는 대상과 최우수상 각 1점, 2점의 우수상 등 총 10점을 선정했다.

수상한 작품 중 일반유형 대상은 '소' 때문에 발생한 이차 가해에 대해 간단한 구성으로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획력이 돋보인다'라는 평을 받은 웹툰만화콘텐츠학과 박민수 학생 작품이 선정됐다.

또 AI 유형 대상은 영어영문학과 이주영 학생의 디페이크 예방이 주제가 된 작품으로 '학생들이 앞으로 생성형 AI와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생성형 AI 분야에 심사위원으로 참



전주대학교는 지난 20일 인문학 콘텐츠 창작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여한 환오교 교수는 "학생들이 생성형 AI와 협력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 감동 깊었다"며 "이러한 활동은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프롬프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문콘텐츠대학 안정훈 학장은 "수상 작품들은 전주대학교의 인문학적 역량을 대표하는 결과물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변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 인문학의 가치를 중시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상작은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ji\_incom)을 통해 공개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인문콘텐츠대학 학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